

크레이그 키너 박사, 로마서, 강의 3, 로마서 1:2-17

© 2024 크레이그 키너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로마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Craig Keener입니다. 이것은 세 번째 세션, 로마서 1:2-17입니다.

이전 세션에서 우리는 로마서 또는 로마서 전체를 흐르는 적어도 하나의 주제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절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서 1장의 내용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복음, 곧 예수님의 좋은 소식을 위해 구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리 약속된 좋은 소식이다.

글쎄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가 이전에 언급한 것처럼 구원의 좋은 소식, 평화의 좋은 소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좋은 소식, 즉 왕국의 좋은 소식인 이사야 52장 7절에 의존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이 좋은 소식은 미리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들의 메시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울은 그것이 이미 구약에 있다고 말합니다. 비록 16장 25절부터 26절까지가 로마서 원문의 일부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16장에서 바울은 그것이 이미 구약에 있다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미스터리가 있었어요. 거기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거나 적어도 이런 수준에서는 사람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이미 있었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한 중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주신 영감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성경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음, 그것은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전체에서 성경을 많이 인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이미 존재합니다.

그는 구약성서에서 그것을 설명할 것입니다. 거기에 있었지만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울이 그들이 그것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제 그는 1장 3절과 4절에서 복음의 주제를 제시할 것입니다. 복음의 주제는 그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는 그에 대해 두 가지 방식으로 말할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렇다면 예수의 일부는 인간이고 일부는 신성하다는 뜻입니까? 그것은 실제로 우리가 성육신에 대해 말할 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두 가지 다른 방식입니다.

육신으로 볼 때, 민족적으로 예수는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7절에 설명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관한 구약성경의 일부 본문과 다른 일부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시편 2편 7절은 사도행전 13장과 히브리서 1장에서 설명했듯이,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즉 즉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셨다고 말했습니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아버지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렇다고 그 전에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누가는 누가복음 1장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높여지셨습니다. 그분은 여기서 문제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부활하실 때 능력을 가지셨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글쎄요, 능력은 종종 부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드리는 유대인 기도가 있었습니다. 18가지 축복 중 하나인 쉼모나 에스레이(Esrei)는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이 성결의 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음, 그것은 권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나중에 로마서 15장 13절, 15장 19절, 고린도전서 2장 4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도 능력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에서는 영이 부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 어느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룩함의 영은 성령, 루아하 하코데시(Ruach HaKodesh) 를 묘사하는 또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

성령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이사야 63장과 시편 51편 두 번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초기 유대교에서 하나님의 영을 묘사하는 방법으로 아주 아주 흔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구약 성서. 로마서 1장 5-6절은 바울의 부르심으로 돌아갑니다.

자, 매우 웅변적인 그리스어에 매우 익숙한 사람들을 위해, 기간이라고 불리는 기간에 여러분은 무엇인가로 시작하고 마침내는 그것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헬라어로 된 기간은 아니지만, 바울은 이것이 매우 세심하게 고안된 서문임을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자신의 이름을 말한 다음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자신에 대해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과 로마 신자들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사도직, 즉 사도직의 은혜를 받았는데, 더 넓은 의미에서 그분은 그들과 동일시하십니다.

아니면 그냥 자기 자신을 뜻하는 걸까요? 때때로 당신은 서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6절에서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이방인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단순히 서간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아마도 바울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비록 그들이 그것을 공유했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아마도 바울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직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12장의 뒷부분에서 바울은 은혜로 은사를 받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그런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그런 호의를 부여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신 방식으로 은혜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사도직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도직을 통해 주신 사명은 이방인 가운데서 그 이름을 위하여 믿음에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논쟁을 벌였습니다.

믿음을 낳는 순종, 믿음으로 낳는 순종은 헬라어 문법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둘 중 하나일 수도 있고 순종이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순종과 믿음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점은 실제로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로마서의 다른 곳에서도 그 내용을 봅니다.

우리는 그것을 로마서의 결론에서 볼 수 있는데, 나는 그것이 진정으로 로마서의 일부라고 믿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 믿음은 단지 상자에 체크 표시를 하고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기 직전에 이것에 대해 생각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주장이 진실인지에 우리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기는 이유입니다.

그는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해 주나요? 그분은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이후에 완벽하게 행동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 바울은 그들이 왜 죄에 대하여 죽었고 따라서 그에 따라 살아야 하는지 그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이 배우고 그분이 우리 삶에서 행하신 일에 대해 더 많이 믿을수록 우리는 점점 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르게 표현하면 때로는 사람들이 말보다 수레를 먼저 가져가도록 한 경우도 있습니다. 로마서의 경우 바울은 매우 분명합니다. 당신은 구원을 향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신뢰한 결과입니다.

동시에, 그에 따른 순종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의로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의도 그 선물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물을 얻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선물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의 삶과는 다른 삶으로 표현될 것입니다.

그는 이것이 자기 이름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의 주석이 실제로 이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로마서의 주제 또는 주제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논평을 읽기 전까지는 그것을 보지도 못했다고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그것이 주요 주제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가 말한 내용이 과장되었을 수도 있지만 이는 로마서의 주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와 영광에 관심이 계십니다.

그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는 것에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즉,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진실은 그에게 명예를 가져다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면 사람들도 그에게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인 중에서 그 이름을 위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니라.

아마도 이 문맥에서는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개념으로 돌아갑니다. 또한 우리는 이 시점에서 로마 교회의 대다수가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유대인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사실상 유대인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54년에 다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그들 중에는 가정교회의 지도자들도 있고, 아마도 토라를 더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 중 불균형적인 수가 유대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에도 예수를 믿는 유대인 신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다 이방인은 아니었지만, 회중의 대다수는 이방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일부 유대 관습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로마에 있는 유대교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로마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글에서 그것을 발견합니다. 로마서 1장과 7절에서 바울은 사랑받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글썄, 그것은 그가 계속해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5장 5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이다.

5장 8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입증하셨는지. 835, 37, 39절, 로마서 8장의 끝 부분에 나오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9장 13절과 2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셨습니다. 11:28 그들은 조상들로 인해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8장 28절).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로마서 12:9, 13:8-10, 율법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14장 15절에서는 서로 다른 관습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은 로마서에서 주요 강조점이 될 것이며 이미 처음에 바로 여기 소개되었습니다.

폴은 이 일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적어도 그것이 종종 번역되는 방식입니다.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사도입니다. 그들은 성자라고 불립니다. 그러면 성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론 가톨릭교회에서는 이를 특별한 용도로 사용합니다.

특별히 거룩한 사람들 등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 있는 모든 신자들을 가리킨다.

그리고 성자는 종종 번역되는 그대로입니다. 성자로 번역된 용어인 하기 오스는 봉헌된, 구별된, 거룩함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비교해 보면 때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성별된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에게 성별하지 않으셨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이 현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처음에 고린도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 부르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봉헌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구별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를 위해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느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자로 생각하면, 성전에 거룩하게 구별된 물건이 있으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바쳐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되고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고린도전서는 실제로 사람들이 항상 그런 식으로 살지는 않지만 이상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른 본문들, 고린도후서 6장과 7절의 첫 구절, 베드로전서 등등.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완전히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농담을 하거나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음식이나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은 음식도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점은 궁극적으로 우리 삶의 목적은 우리가 더 이상 자율적이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작은 삶에서 나에게 무엇이 좋을까, 내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원히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목적을 줍니다.

그가 그들에게 문안하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니라. 글쎄, 당신은 편지의 다른 부분에 대해 기억합니다. 작가님의 글입니다.

그런 다음 청중의 이름을 말한 다음 인사말을 합니다. 앞서 말했듯 이 기레네는 카리스로 바뀌었고, 바울은 유대의 전형적인 인사말인 평안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축복의 역할을 합니다.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빕니다. 그러나 그러한 축복은 항상 신을 불러일으켰고 평화일 때는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인사인 신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Paul은 여기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구약성경의 헬라어 번역에서 하나님과 주는 둘 다 신성한 칭호입니다. 주님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종종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린도전서 8장 5절과 6절에서 바울의 경우 특히 그런 식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쉘마의 한 하나님, 한 주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되십니다. 쉘마 존재, 그는 항상 주님, 우리 하나님, 주님은 하나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많은 편지의 시작 부분에서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베드로전서와 요한계시록 1장 등에서 같은 일을 했습니다. 이제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로 가보겠습니다.

바울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는 사도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는 모든 이방인을 위해 은혜를 입었지만, 그의 사명으로 인해 다른 곳에서 바쁘게 지내기 때문에 바로 그 부르심 때문에 로마를 방문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로마에는 이미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는 15장에서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아마도 그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까지 이그나티아 가도를 따라가던 중 클라우디우스의 법령에 의해 약간 구금되었을 것입니다. 글썄, 그는 발칸 반도의 서쪽 해안을 가로질러 계속해서 그것을 따라가고, 아드리아 해를 건너 로마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뒤를 쫓는 박해자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남쪽으로 베뢰아로 갔다가 결국 마게도냐를 떠나 아가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직 로마에 오지 않은 주된 이유는 특히 영적으로 더 궁핍한 목적지 때문인데, 이는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세계의 일부 지역에 대해 우리에게 뭔가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 꼭 사람을 보내야 할 곳이 있고, 일손이 없어 추수물이 땅에 떨어지고 썩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고, 때로는 공중파 등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한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이나 꿈 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기꺼이 가고, 결코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없이는 갈 수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봉헌된 사람으로서 우리 중 일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부르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같은 부르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마태복음 11장, 누가복음 7장). 그러나 도달해야 할 곳은 아직 도달하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자신의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일단 우리가 그곳에 있는 일부 사람들에게 다가 가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그들은 우리가 처음에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자신의 문화에 더 잘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로마제국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로마

제국에서는 그것이 그에게 많은 이점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가는 대부분의 장소에서 일종의 공용어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또한 추수감사절을 제안합니다. 그의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모든 고대 문자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고대 문자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의 편지 대부분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에서는 그가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에 다소 동요하고 약간 동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1장에서 두 번이나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자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그러나 어쨌든 그의 편지에는 대개 추수감사절이 들어 있습니다.

1장 9절에서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증인으로 부릅니다. 글썄요, 신을 불러 증인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맹세였습니다.

당신이 신을 불러 증인으로 삼으셨다면, 이 모든 것을 보시는 신이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이 신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증언하기 위해 이 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은 나를 처벌할 것이고, 아마도 나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할 만큼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레토리카는 기원 후 기독교 이전 시대의 고대 수사학 핸드북인 알렉산드럼(Alexandrum)은 맹세하에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신을 불러 증인으로 삼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풀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야고보서 5장 12절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것으로도, 이것으로도, 이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일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예는 예가 되고, 아니오는 아니오가 되게 하십시오.

즉, 맹세조차 필요 없을 정도로 성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맹세를 할 수 없다고 말 그대로 말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과장법으로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 역시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께서 실제로 가르쳤는지에 대한 어떤 의문도 없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종종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한 나의 설명입니다. 이는 제임스 등에서도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도 같은 표현을 연상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는 그들과 함께 있기를 바라는 갈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정한 우정의 편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사실, 때때로 이 편지를 쓴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11절에서 이런 종류의 생각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친근한 편지를 쓴 사람들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에게 더 자주 편지를 보내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그 지역에 있을 때 나를 방문하지 않았거나 나를 방문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린도후서 1장의 경우에는 훨씬 더 강력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대개는 단지 애정 어린 표현으로 여러분의 소식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글을 쓰지 않은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이해되는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풀은 마치 내가 당신과 함께 있기를 갈망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단지 내 소명은 지금 다른 곳에 보관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10절과 11절에서 기도합니다. 그는 정말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을 방문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도직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어떤 은혜나 은혜의 선물, 즉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카리스마를 그들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경고였습니다. 고린도전서 4.19 및 16.7. 사도행전 18장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능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자주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제임스는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위험을 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컬렉션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또한 그는 유대 땅에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자신을 괴롭힐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31절과 32절.

그리고 11절과 12절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어떤 영적인 은사를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창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눈에 띄지 않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서로 격려할 수 있도록 이 책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12절. 그래서 그는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동료들, 구별된 동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으며, 그들이 서로 격려를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그를 축복할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격려 중 일부는 그가 바라는 대로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특히 격려하는 데 재능이 있습니다.

동일한 단어인 파라 칼레오(parakaleo)가 12장 8절에 영적인 은사로 나타나고 바울 자신도 이 편지의 다른 곳에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나는 당신을 격려합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로마서 12:1, 로마서 15:30, 로마서 16:17. 그러나 그가 특히 격려하고 싶은 것은 그들의 믿음입니다(롬 1:16, 17).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가 이 편지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내 말은, 그게 이 편지의 중심 부분, 중심점이 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는 왜 그들을 격려하고 싶을까요? 다시 11절과 12절입니다. 그는 이방인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5절과 13절부터 15절). 따라서 이방인에 대한 이 사명에는 그들을 포함하며 그는 신성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원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의무도 있습니다(14절). 그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과 17절에서도 이에 대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무가 있습니다. 하기 싫으니 그럼 해야지.

그래서 나는 그것을 하고 싶고 그것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신성한 의무가 있습니다(14절). 그리고 신성한 의무는 이방인 전체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13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그는 빛이나 의무라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는 13장에서 그것에 대해 다시 언급할 것이며,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빛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고대에는 빛에 관한 언어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특히 유대 민족은 이자와 돈을 빌려서는 안 되었지만 칠년과 희년 때문에 빌려준 것을 항상 갚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빛을 탕감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빛의 노예가 되어 영구적인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는 것을 막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때때로 사람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돈을 돌려받을 여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6년째나 희년이 가까워지면 빌려주기를 중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대인 교사들은 가능성이라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즉, 성전에 돈을 빌려주면 성전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사람들은 성전에 돈을 갚고 사람들은 돈을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뒤쪽에.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최소한 농작물 등을 심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부채가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이 이자를 받을 수 있었던 로마 세계에서 이것을 봅니다. 보고된 사례가 1건 있습니다. 이것은 터무니없고 극단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저는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기억에 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래픽으로 요점을 설명하지만 도시 전체에 50% 이자로 돈을 빌려준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불이행하지 않는 한 그는 많은 돈을 돌려받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3절과 14절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에는 헬라인과 야만인도 포함되었습니다. 야만인은 그리스인이 아닌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리스인들에게도 야만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비록 로마인들은 예외를 두었지만, 특히 그들이 로마인들에게 정복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을 야만인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스인들이 현명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적어도 전통적으로 어리석다고 여겼던 그리스인과 야만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그리스인들에게 바, 바, 바, 바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야만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는 동부 지중해의 지배적인 문화였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그리스-아시아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이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한 후 문화 운동은 양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케도니아인들은 스스로를 그리스인으로 여겼고 동부 지중해의 지배적인 문화, 특히 도시에서 헬레니즘 또는 그리스인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이방인에게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다가가고 싶어합니다.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한 것이지만, 그는 이방인을 위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에는 헬라인과 비헬라인이 모두 포함됩니다.

명제, 논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또는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그리스인들이 가설, 가설, 다루기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특별한 지역 상황과 함께. 그러나 이것은 더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리스인들이 논제라고 부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논문 진술은 일반적이었습니다. 여기 1장 16절과 1장 17절에는 로마서에 만연한 많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이것이 바로 주제입니다. 특히 10장까지는 주요 주제입니다. 믿음. 음, 그것은 로마서, 특히 1장, 3장, 4장, 10장, 14장의 주요 주제입니다.

유대인 이방인 문제는 특히 9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다시 1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것처럼 그것은 로마서 전체에도 적용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의와 믿음에 관한 좋은 소식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의 주제가 복음이라고 더 일반적으로 제안합니다.

주제는 구약의 언어를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 98편 2~3절, 이사야 51편 4~5절, 52:10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2절에서 본 것과 일치하게, 바울은 선지자들의 성경을 통해 자신이 구별된 이 복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약의 언어와 구약의 주제를 사용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이 좋은 소식이 이렇게 된 이유입니다. Richard Hayes는 구약성서와의 상호텍스트성에 관해 많은 연구를 해왔고 다른 많은 학자들도 여기에서 구약성서 주제를 살펴보며 이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비록 나는 이것을 Richard와 약간 다르게 해석할 것이지만, 상호텍스트성에 관한 그의 작업에 대해 큰 존경심을 가지고 해석할 것입니다. 복음 16절, 이것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이미 9절에서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특히 1장 3절을 비교하면 복음, 즉 육신을 따라 다윗의 씨로 나신 예수님의 복음을 말합니다. 능력이 있는 성결의 영. 그분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습니다. 복음의 주제는 15장, 19장, 20장에서도 볼 수 있고, 16장, 25장에서도 복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이십니다.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전도란 무엇입니까? 복음을 선포한다, 복음전파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특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분의 사역의 절정을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이상으로 천국 복음 전체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네 가지 복음서를 모두 읽어 줄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구원 역사 전반에 걸친 하나님의 사역의 절정입니다. 이제 16절에서 그는 또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은 우리가 리토테(litotes)라고 부르는 것일 수 있는데, 여기서 요점을 전달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절제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거나 복음의 메시지를 자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다른 곳에서도 내가 자랑하려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명예와 수치를 강조하는 문화였습니다. 사실 모든 문화권에서 어느 정도 그런 일을 하는데 이는 명예와 수치심을 심하게 강조하는 문화였고, 특히 남성, 도시, 고대 지중해 문화였습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지위를 의식하는 문화 속의 어리석음과 나약함을 포함하고 있으며, 고린도전서 1:18-23에서 강조된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나는 로마가 정죄하고 십자가에 매달린 처형된 범죄자, 즉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비열하고 굴욕적인 죽음을 따르는 데 내 인생을 바쳤습니다. 예, 저는 그의 추종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적대감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8-12-16 이 일을 말하되 결박을 부끄러워하고 로마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라. 베드로전서 4장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행악자로 고난을 받지 말고 도리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거든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고 싶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사실 젊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장소, 때로는 거리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매를 맞은 적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아왔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

알다시피, 나는 단지 그들에게 그것을 제안했을 뿐입니다. 나는 그것을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것에 대해 들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를 때리는 사람들은 대개 마약에 취했거나 술에 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나중에 부끄러움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요.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은, 아마도 입을 다물고 있었어야 했던 순간 중 하나였을 거라는 뜻이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두 번 정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제가 성령으로부터 수표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게 증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람과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단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나를 때렸고, 나를 다시 보면 나를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중에

하나님의 종들이 최후 심판 때에 종말론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소망을 말합니다.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며, 그곳에서 시편의 언어를 불러일으킵니다. 9장 33절과 10장 11절에서 그는 이사야 28장 16절의 표현을 상기시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 좋은 소식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곳에서 권력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창조하는 능력, 1:20; 능력,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 9:17-22; 15:19 장에서 기적을 통한 능력; 특히 1장 4절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이 나옵니다. 그는 에베소서 1:19-20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때문에 로마서 15장 13절에 암시된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하는 것은 새 생명을 제공함으로써 변화시키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사람들에게 구원을 확신시키는 성령의 능력도 성령으로부터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2.4-5. 데살로니가전서 1.5. 그러므로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이요, 언젠가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릴 권세입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고,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것이 먼저 유대인에게 해당되고 헬라인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이미 5절과 13절부터 15절에서 자신의 메시지가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로마서에 여러 번 나타날 그 요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것이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지만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합니다(1장 2절).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이러한 긴장은 바울이 로마서 9-11장에서 자세히 설명하면서 마침내 해결됩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7장 27절에서 예수님은 그리스 지배 시민 계급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먼저 왔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먹이를 주도록 하세요. 그러나 그는 그녀의 믿음 때문에 그 요청을 들어줍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의 바울도 회당에서 시작됩니다. 28장 17절에서 그는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는 무엇을 하는가? 그분은 로마의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그들과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에게도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8장은 이 편지 뒤에 있지만 그는 유대 민족에게 다가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유대 민족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이방인에게도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의 주요 소명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바울이 먼저 회당에 갔다가 나중에 이방인들에게 가는 것처럼 누가가 묘사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들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은 회당에서 다섯 번과 39대의 채찍질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회당을 구타하는 일이었습니다. 신명기에는 40세를 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율법을 둘러싸는 율타리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최대 39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당에서 여러 번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가 회당에 가지 아니하였더라면 회당에서 매를 당하지도 아니하였으리라.

그는 언제나 그들과의 교제를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에 복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는 회당에서 목소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회당에서 여러 번 매를 맞았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말 그대로 유대인에게 먼저 가고 헬라인에게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략적인 측면에서나 구원사의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미 성경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과 정기적으로 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경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메시아라는 범주를 갖고 있었고, 적어도 그들 중 상당수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시작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의 사명은 모든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왜 그는 먼저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여기서는 그리스인이라고 말합니까? 왜 그는 이방인 대신 그리스어라고 말합니까? 아마도 그는 이제 야만인들을 제쳐두고 그리스인들만 섬기기로 결정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 가능한 설명이 있습니다.

우선 이방인들, 이미 14절에서 그들을 헬라인과 야만인으로 언급하셨는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 대부분은 헬라어를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민자였으며 로마에 있는 대부분의 유대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라틴어를 사용했지만 대부분은 그리스어를 사용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종종 자신들을 야만인이 아닌 그리스인으로 여겼습니다.

로마의 유대인들은 대부분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의 비문에는 지하 묘지 등이 나와 있습니다.

지도자 목록은 2세기까지의 사실을 보여줍니다. 로마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 이르기까지 1세기 말경에 기록된 클레멘스 1서는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대부분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로마 교회는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요인은 그가 유대인과 그리스인에 대해 말할 때 종종 일반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9절과 10절, 3장 9절, 10절, 12절에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나옵니다. 또한 바울의 글에도 많이 나오고 심지어 사도행전에도 가끔 나옵니다. 다른 경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습니다(롬 3:29, 9:24, 고린도전서 1:23). 그러나 그는 종종 유대인과 헬라인을 사용합니다.

환유로서의 그리스어 또는 이방인 전체를 나타내는 그리스어. 요세푸스는 유대인이 아닌 도시 거주자 모두를 가리키는 데 그리스인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일부 번역에서는 여기에서 단지 이방인을 번역했다고 생각하므로 설명이 불필요해집니다. 그러나 원어에 더 가까운 번역이 있는 경우 여기의 그리스어는 아마도 일반적으로 이방인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이 이미 그리스인과 비그리스인에 대해 이미 명시적으로 말한 내용 때문에 모든 이방인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글썄, 그는 그리스어로 가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것을 다음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방인에게도 좋은 소식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도표를 그리면 로마서 1장의 개요를 만들 수 있지만, 실제로 도표를 그리려고 하면 이렇게 긴 문장이 나오고 이 모든 연결어가 그리스어로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 때문에 이것이 사실입니다.

흐름도처럼 도표화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의의 길이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1장 17절에서 그 내용을 전개할 것입니다.

글썄요, 만약 그가 말하고 있는 이 용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의, 특히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디카이오스네, 정의. 일반적인 그리스어 사용법에서 이 용어는 정의를 의미했습니다.

70인역에서도 이러한 종류의 본문이 바울 시대의 가장 일반적인 본문 버전이었습니다. 칠십인역에서는 종종 의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나 그분의 언약적 사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36편, 40편, 88편, 98편, 103편, 111편, 119편, 141편, 143편, 145편에서 이 사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70인역의 헬라어 열거보다는 영어 열거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인해 그는 칠십인역에서 행동하게 됩니다. 시편 31편 1절과 35편 24절에서는 그것이 그로 하여금 정의롭게 행동하게 만듭니다.

글쎄, 그것은 그리스 용어 *Dikaiosune* 이 그런 식으로 사용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그분은 자신의 종을 위해 자비롭게 행동하게 됩니다. 시편 5.8, 시편 71.2, 15, 16, 19, 24, 시편 88.12. 그리고 시편 51장 14절에서 용서받을 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의를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그분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그분의 백성을 그분과 함께 의롭게 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기도 합니다. 로마서에는 충격적인 언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의롭다 하시는 충격적인 언어입니다. 정당화는 불법 소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수는 있지만 누군가를 정당화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무죄로 선고하고 무죄를 선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70인역의 디카이오수네에서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는 동사는 법적 허구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결백하다고 선언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4:16, 이사야서 43:9 및 26, 에스겔 44:24과 같은 법의학적 상황에서 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3 장 7절에는 재판관이 죄인을 무죄로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은 자를 정당화하거나 의롭다고 선언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무고한 자를 의롭다고 선언해야 합니다(신명기 25:1). 우리는 열왕기상 8장 32절과 역대하 6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의롭다

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로마서 3장 4절에 인용된 시편 51장 4절에서 공의로운 심판을 선포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공의로우신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는 그것이 자비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심판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이에 대한 예가 있습니다. 다니엘 9:7과 14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간청합니다. 당신의 의에 따라 그들을 용서하십시오(다니엘 9:16). 미가 7장에서,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의롭게 하실 것입니다(미 7:9).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종말론적 옹호, 미래의 칭의, 미래의 무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옳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45:25, 50:8, 58:8에서는 그런 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비록 이들 중 일부는 그들의 죄를 짊어질 의로운 종을 포함하여 이전 문맥에서 형벌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지만, 로마서 4장 25절에서 언급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사야 53장 11절을 포함합니다. 느헤미야 9장 8절에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은 그가 신실하다고 믿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존중하시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 약속이 그에게 의롭다고 여겨진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 전체에 걸쳐 우리가 의와 칭의에 관해 보는 내용의 분위기를 설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분의 백성을 그분과 함께 바로잡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간의 의에만 의존하는 것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6절과 빌립보서 3장 9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도달한 목표가 아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새 삶을 지시해야 하는 관계적 전제입니다(빌립보서 3:9~11). 로마서는 종종 동족 동사인 디카이오(dikaiao)를 사용 합니다 .

그리고 그것은 바울이 여기서 동족 명사인 디카이아수네를 사용하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 그는 의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어떻게 의로우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는지 3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므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법의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 중 하나의 요소일 뿐입니다.

법의학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무죄 판결을 다룬 후 편지는 행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8장의 일부, 로마서 12:1부터 15:7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실 때, 사람들은 단순히 법적 허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느니라.

창세기 1 장 3절과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경험에도 적용합니다. 정의는 법적 허구가 아닙니다. 의로움은 변화시키는 선물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성취라기보다 신의 선물이다. Paul은 그것에 대해 분명합니다. 로마서 5:17, 21.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또한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1:5, 2:8, 5:19, 15:18도 기억하세요. 그게 바로 사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6절부터 18절, 8:2-4, 13:14. 신학적 용어로 표현하자면, 칭의는 중생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의롭다고 선언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즉시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나 자신의 경우에는 모든 것을 즉시 살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부터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가 의미하는 바는 논쟁의 여지가 있었지만 아마도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용된 하박국 2장 4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믿음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아직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것은 그리스 관용어에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포함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로마서에서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해 많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나 신실함을 의미하는가? 그러나 로마서에서 동사 *pisteuo*는 거의 항상 목적어로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나는 이 논쟁을 맡게 됩니다. 이 논쟁은 3:22에 다시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언급하고 있는 것이 그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그분의 신실하심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알게 될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 로마서 4장에 도달하면 보게 되겠지만, 기본적인 구원 믿음의 입문은 꽤 입문적인 것입니다. 그가 이삭을 바쳤을 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믿음이 발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초보적인 믿음은 꽤 초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격려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머릿속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확실히 삼위일체의 모든 세부 사항을 알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도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곤경에 처할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들이 알아내기 위해 매우 열심히, 오랫동안 노력해 왔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사람이 믿을 만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낫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의심을 억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느낌을 갖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그분께 맡길 만큼 그분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키에르케고르식 어둠 속으로의 도약이 아닙니다.

키에르케고르는 그의 시대의 특정 철학과 관련을 맺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키에르케고르식 어둠 속으로의 도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 속으로 의도적인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말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장부터 23장, 28장에는 세상의 거짓 이데올로기, 타락한 마음, 세상의 가치관이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과 대조됩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은 진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오늘날 우리 문화, 오늘날 나의 문화에서 영어 단어를 사용할 때 종종 생각하는 것처럼 꾸며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간절히 바라기만 하면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칸트는 다른 사람들이 주관적인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신앙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은 주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주관적인 영역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객관적인 것, 즉 지식과 분리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키에르케고르는 믿음이 단지 주관적일 뿐인데 어떻게 이 틈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글썄, 당신은 어둠 속에서 도약하거나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나아가는 의도적인 발걸음입니다. 내 생각엔, 나에게 얼마나 많은 믿음이 필요한가? 예수님께서서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당신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가 아니라, 당신의 믿음이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때때로 서구 세계에서는 학계의 회의론 때문에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키워야 한다는 식으로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대신에 우리의 믿음을 믿음으로 삼게 됩니다. 그는 기록된 대로 성경을 인용할 것이라고 말하며, 기록된 대로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성경 인용에 사용된 친숙한 공식을 사용합니다. 사실, 그것은 구약성서에도 적용되며, 때로는 구약성서의 이전 문서를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의인을 가리킨다. 그러면 의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는 하박국서 2장과 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문맥은 땅에 심판이 임할 때 심판 때에 의인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의로운 사람을 예수로 여겼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의로우셨습니다. 거기에는 논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3:14과 7:52에서는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갈라디아서 3장 11절의 같은 구절을 인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바울 문헌에서 디카이오스 (의로운) 의 다른 16가지 용법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아마도 여기서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신실함이나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믿음은 신실함을 의미하며 신실함에 달려 있습니다. 하박국서 2.4의 헬라어 역본인 칠십인역에서는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나의 믿음, 나의 피스티스를 말합니다.

히브리어로는 하나님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중에 로마서 3장 3절에서 하나님의 믿음이나 신실하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의 피스티스는 그의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청중에게 알려진 헬라어 버전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그는 대명사를 생략했습니다. 아마도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헬라어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고, 히브리어는 의인의 믿음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명사를 생략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일반적으로 로마서 3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1장 8절, 12절 등에서는 신자의 피스티스를 말합니다. 여기 로마서 4장과 5절에서 동일한 본문을 반복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전에 갈라디아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11장에서 그는 의와 믿음을 모두 언급하는 두 성경 본문을 미드라시적으로 연결합니다.

다른 본문은 신자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창 15:6)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말은, 그는 회당에서 충분히 논쟁을 벌였기 때문에 만약 그가 그리스어 성경을 인용하고 있었다면 비록 그가 히브리어 성경을 염두에 두지 않았더라도 누군가가 그 시점에서 그의 관심을 끌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마도 여기서 신자의 믿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른 바리새인 해석가들처럼 그는 아마도 영생을 삶에 적용했을 것입니다. 내 말은, 원칙은 판결에서 살아남는 것이지만 원칙은 그 이상으로 확장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위해 일하시는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말할 때 영생은 일반적으로 다가오는 시대의 부활 생명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 2:7, 5:21, 6:22, 23, 8:13에서 이 표현을 사용한 방식입니다., 10:5 및 14:9. 그래서 저는 이것이 여기서도 의미하는 바라고 생각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내세의 부활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이미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갔습니다(6:10-13, 8:2, 8:6). 그러므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박국에서 의미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를 신뢰하는 자들을 진노에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적용한 경우 이는 특정 시간에 특정 심판의 진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았으므로 영생, 내세의 생명, 다니엘서 12장 2절에 언급된 생명을 얻습니다. 그 생명은 유대인들이 우리 몸이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내세의 생명을 갖는다는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부활했다.

이 진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진노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우리는 이 진노가 사람들을 자신의 어리석음에 내맡김으로써,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들을 도덕적 광기에 넘겨줌으로써 표현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로마서 1장의 다음 부분에서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Craig Keener입니다. 이것은 세 번째 세션, 로마서 1:2-17입니다.